해양스포츠연구, 2014, 제4권 제2호, 1-13.
Journal of Marine Sport Studies
2014, Vol. 4, No. 2, 1-13.

耽羅巡歷圖에 내재한 국궁 과녁의 형태적 함의

최석규* 서울대학교

Morphological Implications of Archery Target in the Tamrasunryeokdo

Choi, Seok-Gyu *Seoul Univ.*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current archery target by drawing morphological implications which is included in 貫 and 布 of Tamrasunryeokdo. Sir Karl Raimund popper gave intersubjective conclusion which is based on rasonable ciritism. First of all, the target which depicted on Tamrasunryeokdo by Heongsan Lee, is classified by fixed target and portable target. The form of target is divided by 邊 and 貫, and 邊 consists of 邊, 貫, 鵠 and '離'. Secondly, current 紅心 of 貫 is in succession to patterns of 貫 and 布, neither symbolizing the 日章旗 of '히노마루(日の丸) and communism nor improvising the process of coordination. '布' of '離' represents the sun which indicates the fire in the '乾坤坎離' of 4卦. This has purpose of enhancing martialism which improves the morale and courage of military. The third, 貫, 布 of 鵠 the has same formation with the current target of 貫. 紅心 gives also the focus of 布 and the top of the current target 一字 which became variation of 이 in the '乾坤坎離' or permanent by number. 貫 and 布 in the Tamrasunryeokdo is invaluable asset in the Jeju which kept the origin formation of archery target. It is also the symbol which represents reviewing the old and learning the new to continue our ancestor's wisdom.

논문정보

논문투고 : 2014. 7. 18.
논문수정 : 2014. 8. 14.
게재확정 : 2014. 8. 22.

Key words
Jeju,
Tamra sunryeokdo,
target,
gwanhyeok,
hongsim

* *E-mail* : gakkung1234@hanmail.net

Ⅰ. 서론

역사적 사건은 당대의 각종 회화 및 문학작품 그리고 사료들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유추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함의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 탐라는 제주의 옛 지명이며, 고려 말기까지도 탐라국이라는 독자적인 실체가 있었다(진영일, 1996). 보물 제 652-6호인 탐라 순력도[1]는 1702년(숙종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병와 이형상(1653~1733)이 제주관내를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실사구시에 입각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채색도이며, 화폭 하단에 이형상의 친필로 간결한 그림설명을 적고, '호연금서'라는 이름의 그림 한 폭을 곁들여 꾸민 총 41폭의 기록화첩이다(윤민용, 2010).

17~8세기 실사구시적인 진경산수화풍에 따른 조선의 회화작품과 기록화첩은 실제 있는 경치는 물론 그에 깃든 정신까지를 사생해 낸 선현들의 지혜와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다(황재영, 2009). 국궁수련은 사자(射者)로 하여금 의인화(擬人化)된 과녁을 대상으로 정중동(靜中動)의 심적 갈등을 극복하며, 심신의 기운을 하나로 결집함과 동시에 분출하는 체육적인 요소를 지닌다(최석규. 2009). 18C초 제작된 탐라순력도[2]의 관, 포는 현존 국궁과녁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써, 탐라순력도의 관과 포의 형태적 함의 도출을 통해 조선시대와 근 현대 국궁과녁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사전쟁무기로서의 효용성이 절대적이었던 갑오경장 이전의 국궁과녁은 실전적 상무정신 강화를 위해 화살이 과녁에 박히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체육을 목적으로 한 현존과녁은 과녁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맞고 튀어나오는 편리성을 가미하였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는 현존 국궁과녁의 정체성 정립에 매우 유용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국궁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결과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출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궁의 이론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란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궁의 인문학적 선행연구로써, 손환(2005)의 '한국에 있어 활쏘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옥광·최석규(2008)의 '한국전통 활쏘기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소고', 김현준·최석규·옥광(2008)의 '한국전통 활쏘기의 철학적 특성; 정간배례와 집궁시제원칙을 중심으로', 최석규(2013)의 '조선시대 궁술의 사회·문화적 기능', 최석규·옥광·정희석(2009)의 '조선후기 국궁의 변천과 사회·문화적 기능', 최석규·옥광(2009)의 '개화기 국궁의 사회·문화적 기능', 최석규(2009)의 '국궁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변천', 그리고 우리민족 고유의 활쏘기에 대해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소개한 Ok, G. Choi, S. & Jeong, H.S.(2010)의 '*The Ancient Origin*

1)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풍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제주도의 역사연구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소중한 화첩이며, 그 진본을 이형상의 후손들이 간직해오다가 1998년 12월 제주시가 매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탐라 순력도는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다.

2) 조선 숙종 때인 1702년에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에 부임하여 제주도내 각 고을을 순력하면서 당시 거행했던 여러 행사장면과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제주 목소속 화공(畵工)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40폭의 채색그림으로 그리게 한 화첩으로써 오랫동안 그의 후손들이 관리해 왔으나, 지금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고, 제주시에서 1994년에 영인본을 간행하였음.

and Development of Korean Archery' 등이 있다.

이밖에 고대 우리민족의 국궁에 관한 선행연구는 최석규·정희석(2009)의 '국궁의 고대사적 전통'을 비롯하여 전은진(2011)의 '한국 고대와 중세의 국궁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정재성·최미애(2011)의 '전통시대활쏘기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역시 고대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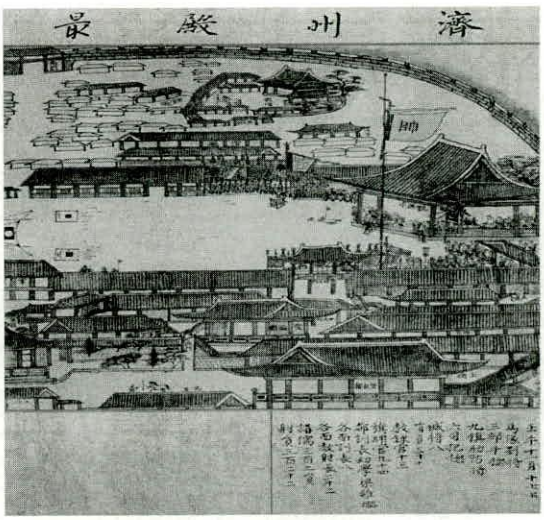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궁술의 체육적인 기능과 고대사적 관점 그리고 사법에 관한 연구로부터 궁술의 변천과 철학적, 사상적, 회화적, 사회·문화적 특성과 기능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와 같은 조선시대 기록화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국궁과녁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궁과녁이 묘사된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 이형상의 기록화첩인 탐라순력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국궁과녁의 형태적 요소들에 대한 함의 도출과 이를 근거로 현존과녁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존과녁의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II. 탐라순력도의 貫, 布와 국궁과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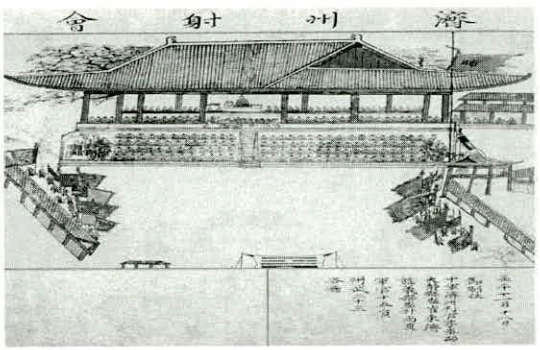
1. 탐라순력도의 관, 포의 기능 및 특성

<그림 1>은 탐라순력도 중 1702년(숙종 28) 11월 17일 제주 관덕정(觀德亭)에서 시사회(試射會)를 열고 있는 장면이다. 관과 포가 각각 묘사된 것으로 보아 제주관내 각 군영 간 활쏘기 대항전 광경인 것으로 유추된다. 예컨대, 전최란 조선시대 관찰사가 각 고을의 수령들을 불러 놓고 각각의 치적을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김철환, 1966). <그림 1>의 관, 포와 과녁 터 주변에 떨어져 있는 화살과 관덕정 사대에는 한량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관덕정 주변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듯 보이는 한량들이 활 통을 메고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 대한 화제는 제주전최가 아닌 제주사회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림 1> 제주전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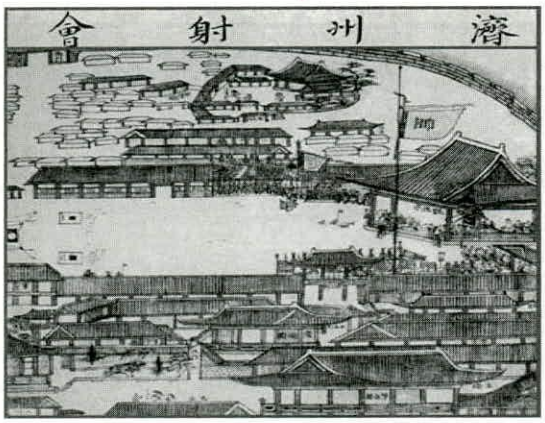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그림 2> 제주사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그림 2>는 제주사회가 있었던 다음날 즉, 1702년(숙종 28) 11월 18일 중군제주판관 이태현, 대정현감 최동제, 정의현감 박상하, 군관 15, 주무 23명을 비롯한 각 청의 소속인원들이 관덕정 중앙의 이형상 목사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도열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마당에는 포를 중심으로 양편에 각 군영의 기수들이 도열해 있는 것에 대해 '제주전최(濟州殿最)'와 '제주사회(濟州射會)'는 화제가 뒤바뀐 것이라 주장한 윤민용(2010)의 논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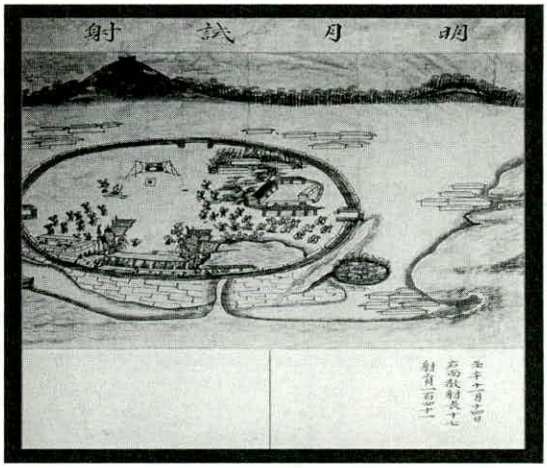
<그림 3> 제주사회

출처: http://images.google.com/

<그림 3>은 <그림 1>과 같은 장면인데 제주사회로 화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관덕정에서 열린 시사회 장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과 '포'의 형태와 문양이 현존하는 국궁 과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덕정 중앙에 '관' 과 '포'를 설치하고 제주목사가 직접 참관하는 시사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원사전쟁무기로서 또는 인재등용의 방편으로서 18C 조선의 국궁에 대한 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하겠다.

관덕정 중앙에 설치된 관과 포의 문양 중에서 특이한 것은 관의 차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一' 과 '二'인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홍심에 관 번호를 써 넣는 현재의 과녁번호 표기 방식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존 과녁의 상단부분에 표기된 '一 자 띠'와 탐라순력도의 관덕정 관혁 상단에 표기된 숫자 '一', '二'와의 상관성 규명역시 국궁의 정체성 정립에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4> 명월시사

출처: http://images.google.com/

<그림 4>에서 유추되는 것은 바로 '포' 앞에 설치된 관혁의 一자 표기인 것이다. 이는 탐라순력도의 명월시사(明月試射)에 관한 기록인데 관덕정 시사와는 달리 관혁을 하나만 설치한 것이 상이하다. 따라서 시사에 참가하는 인원도 적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덕정에서 열렸던 시사회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궁사들이 참가한 시사회에서는 과녁 하나만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국

궁장이 아닌 소규모였기 때문에 과녁 하나만을 설치했던 것과 유사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존과녁 상단의 一자 띠의 생성과 상관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존과녁의 '일자 띠' 또는 '눈 썹'으로 불리고 있는 과녁 상단의 검정 띠는 탐라순력도 제주사회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一관'에 대한 표기인 것이며, 관이 증설될 때 이와 같이 '一. 二, 三의 표기가 홍심 중앙이 아닌 상단에 표기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라순력도의 제주사회에 묘사된 관 표시인 '一', '二' 는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님에 틀림없다.

또한 관과 포의 형태와 크기에 있어 상호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용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는 무과시취 종목 중 목전(木箭)쏘기의 규정사거리인 240보(288m)에 사용된다. 따라서 무과 응시자는 목전으로 이 포를 넘겨야 한다. 실제로 무과시취에서는 목전이 포를 넘어 얼마나 멀리 넘어갔는가를 계산하여 가산점을 주었다 하였다(이중화, 1929).

무과시취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화살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한 것은 바로 응시자의 궁력 즉, 힘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포' 또는 '솔포'라고 하는 이동식 과녁은 전쟁이 잦았던 시기에 있어 매우 유용한 군사용 훈련 장비였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나무로 짠 '관'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휴대가 용이했으며, 야전에서 진지를 구축한 후 지지대만으로도 '포'를 설치하고 활쏘기를 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포의 용도는 전쟁용이 아닌 군사들의 궁력을 시험하기 위한 멀리쏘기 용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는 화살촉이 현재와 같은 둥근모양이 아닌 촉끝이 예리한 살상용이었으므로 포를 찢고 통과할 때 관중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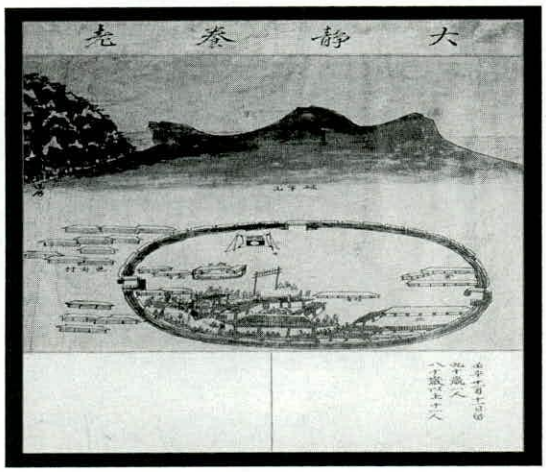
<그림 5> 제주조점

출처: http://images.google.com/

<그림 5> 제주조점은 제주감영의 모든 관속들을 점검하는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감영 내외에 관덕정과 연무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관덕정에는 관, 포가 함께 설치되어 있지만, 연무정은 포만 설치되어 있고, 관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상술한바와 같이 포의 용도가 무과에 채택되었던 목전 즉, 군사들의 궁력을 측정하기 위한 멀리 쏘기를 위한 용도였기 때문이며, 그 크기가 확대된 것은 군사훈련용으로써 포의 용도가 더욱 중요했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은 18C 초 조선시대의 무과시취와 조선군 군비체제와 군사훈련의 목적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무과시취의 종목이었던 철전, 편전, 유엽전 쏘기에 사용되는 관혁과 목전을 사용

하는 군사용인 포가 설치된 관덕정의 관, 포는 시사회를 위한 것이며, 포만 설치된 연무정은 군사수련을 위한 장소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대정양노(大靜養老)
출처: http://images.google.com/

위 <그림 6>의 '대정양노'에 묘사된 포의 '관'과 '리'의 문양에서 현재의 과녁과 같은 '관'과 '홍심'과 '한일자 띠'에 대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포'에 그려진 사각형의 '관'과 원형의 '곡'은 현존하는 과녁의 '관'과 '홍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솔 포' 상단의 '리'는 현재의 '일자 띠'로 축소시킨 것이라 한다면 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포의 문양과 현존하는 과녁의 문양은 상호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 제주전최의 '一, 二'와 <그림 4> 명월시사의 '一'과 같은 관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현존하는 '일자 띠' 또는 '눈 섶'은 명월시사와 같이 과녁하나만을 사용했던 것이 고착화 된 것이며, '포'의 '관' 중앙에 묘사된 '원'은 현존 과녁의 '홍심'에 관한 분분한 추측들을 일축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갑오경장 이전의 '포'는 그 용도가 이동이 용이한 훈련용 표적이었다란 점에서 조선시대의 과녁형태는 군사적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건곤감리[3]' 4괘 중 '화(火)', 즉 태양을 뜻하는 '리(離)'를 '포' 상단에 그려 넣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군사들의 교습 시 불꽃같은 용기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존하는 과녁의 중앙원 즉, '홍심'의 태동에 관한 많은 이견들이 상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예컨대, 김집(2001)은 한국전쟁 후인 1954-55년경 과녁의 관 중심에 홍심을 그려 넣는 습관이 각 활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으며, 과녁이 커진 이유는 홍심을 그려 넣다 보니 검은 색 관 부분이 좌우로 넓어지게 된 것이고, 상단의 한일자는 과녁의 균형을 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정진명(1999)은 1960년 이전에는 홍심이 없었는데, 1960년대 대궁에서 과녁을 통일 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며, 관 위의 한일자에 맞추다 보니 관이 넓어져 중심점이 필요해짐에 따라 홍심을 그려 넣게 된 것이 한다. 이에 대해 김기훈(2005)은 '1958년 1959년 황학정 백년사에 수록된 사진에 이미 관에 홍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홍심을 관에 넣다 보니 관이 커진 것이 아닌가하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정진명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설은 현존하는 과녁에 '빨간색 원(홍심)'을 그려 넣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에서 일장기(日章旗)[4]의 상징인 '히노마루(日の丸)'를 과

3) 건곤감리(乾坤坎離): '주역'에 나오는 8괘 중 하늘과 땅, 물, 불을 상징함.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녁에 그려놓고 이를 쏘아 맞췄다는 것이다.

또한 6.25 한국전쟁을 겪고 난 뒤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홍심을 과녁에 그려 넣고 이를 쏘았다는 일부 궁도 인들의 설을 열거함으로써 현존과녁의 정곡인 '홍심'의 태동에 대한 이견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논증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포'의 문양이 현존하는 과녁의 '관'과 '홍심'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존과녁의 홍심은 일제강점기 급조된 '히노마루'가 아닌 18C 조선시대에도 이미 사용되었던 포의 '정곡'이며, 관혁 상단의 '一'과 '二'는 조선시대 관혁의 관 표시가 그대로 고착화된 것이다.

또한 포의 상단에 묘사된 '리'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상무정신의 표상으로써, 고대로부터 계승된 군사적 전통성과 선현들의 지혜가 내재된 기능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를 토대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관과 포의 형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현존과녁과의 상관성은 18세기 조선시대 전·후반의 시대적 흐름을 향유했던 인물들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5] 풍의 현장감을 되살린 실사구시(實事求是)[6]적인 화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화공 김남길은 드러난 사실 그대로를 과장되지 않고 현장감 있게 묘사해야 할 임무를 띄고 이형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과 '포'의 문양과 형태가 현존 과녁의 관과 홍심에 대한 전통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존 과녁의 관, 홍심, 일자 띠의 변천과 형태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로써 매우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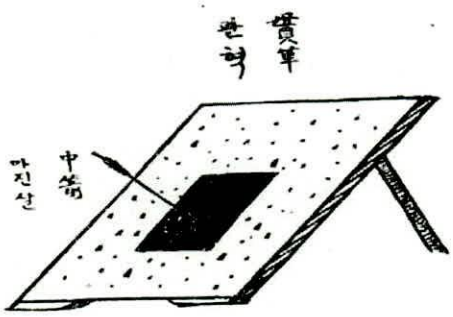
2. 탐라순력도의 관, 포와 국궁과녁의 연계성

<그림 7>은 1928년 7월 14일 서울 황학정에서 개최된 제1회 전 조선궁술대회 광경이다(동아일보). 왼손으로 활을 당기고 있는 궁사 양편으로 선수들이 좌우로 넓게 벌려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국궁대회의 꽃인 단체전 결승경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제1회 전 조선궁술대회(황학정)
출처: 동아일보(1928. 7. 14)

<그림 8>은 '조선의 궁술(1929)'에 기록된 과녁이며, 그 형태나 문양이 <그림 7>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관혁(貫革)과 중전(中箭), '마진살' 이라 표기한 것에서 '貫革'은 '과녁'으로 '中箭'이 관중(貫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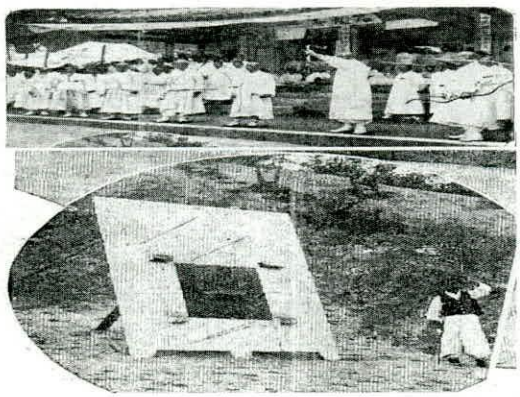
4) 일본을 상징하는 깃발임.. 원어로는 '닛쇼-키'라고 읽지만 일본인들은 '히노마루(日の丸)' 즉, "해 동그라미"라고 함.
5) 동양화에서 자연의 풍경을 실제적이며 진솔하게 묘사한 그림.
6)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탐구함.



<그림 8> 1929년대 과녁

출처: 이중화, 1929.

<그림 9>은 제3회 전 조선궁술대회가 열렸던 서울 석호정의 모습이다. 4명의 궁사가 서 있고 궁사들이 양쪽으로 각각 도열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체전 결승경기 중 대걸이[7]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진 아래 쪽 과녁에 꽂힌 화살을 통해 당시까지도 과녁에 박히는 예리한 화살촉을 사용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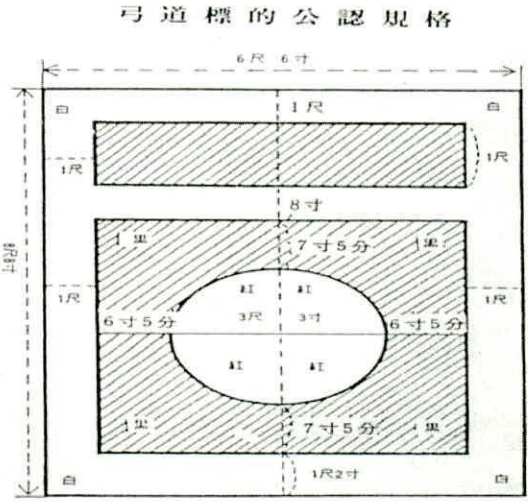


<그림 9> 제3회 전 조선궁술대회(석호정)

출처: 동아일보(1932. 5. 9)

또한 관 중앙과 주변 네 귀와 중앙에 나무토막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녁에 박힌 화살을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한 받침대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림 8>과 같이 관 아래를 땅과 떨어지도록 설치한 것은 과녁소재가 목재였기 때문에 목재의 부식을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700년대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관혁과 1900년대 과녁을 비교해 볼 때 곡(鵠)과 변(邊)을 세분화하여 관중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던 당시의 채점방식과 동일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0> 과녁의 규격과 문양

출처: 대한궁도협회

위 <그림 10>은 현존 국궁과녁의 제원과 문양이다. 이러한 대한궁도협회[8]의 시설규정은 과녁의 규격과 색상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옆 과녁이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과녁 전체의 규격은 가로 6尺6寸(2m), 세로 8尺8寸(2.6m)

7) 양편 같은 사순의 선수가 일대일 대결을 펼치는 경기 방식을 일컬음.

8) 1948년 8월 25일 조선궁도회를 대한궁도협회로 개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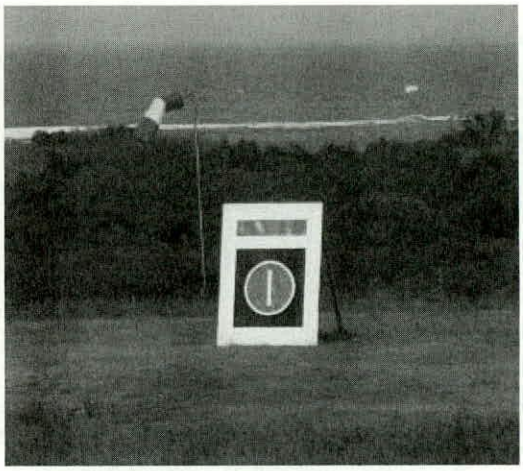
이고, 검은색 관의 넓이는 좌우 1尺씩을 뺀 가로 4尺6寸(약1.4m), 세로 4尺8寸(약1.45m)이며, 관위의 검은색 한일자 띠는 가로 4尺6寸(약1.4m), 세로 1尺(약 30.3cm)인 것이다. 또한 '홍심'으로 불리는 붉은색 원은 지름 3尺3寸(약1m)로 규정한 것이다(대한궁도협회). 이는 1700년대 탐라순력도의 관, 포와 1920-30년대 관혁과 상당부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는 현재 대한궁도협회의 시설규정에 준하여 제작 사용되고 있는 표준과녁이다.

<그림 11> 현재 과녁

출처: 울산매일(2014. 2. 26자 기사)

<그림 12>은 대한궁도협회의 시설규정과는 달리 변형된 과녁이다. 즉, 일자 띠 또는 눈 섶으로 불리는 상단의 문양을 검정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칠한 것이다. 또한 <그림 11>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궁도협회 시설규정에는 없는 관중앙의 붉은색 원 안에 숫자로 관 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그림 12>는 숫자 1이 아닌 한일자를 세로로 써 넣고, 관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과녁을 사용하는 것은 대한궁도협회의 시설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활터는 <그림 11>과 동일한 과녁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 울진 칠보정 과녁

출처: 국궁신문(2010. 6. 21자 기사)

결과적으로 탐라순력도와 조선의 궁술,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묘사된 관혁의 문양인 흰색의 변과 검정색의 관은 현존 국궁과녁의 본바탕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관의 중심에 둥근 원(홍심)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 가운데 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탐라순력도의 포에서 드러난 문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 국궁과녁의 '관'과 '홍심'은 조선시대 포의 문양과 상호 연계된 것이며, 이는 포의 '관'과 '정곡'을 현 국궁과녁의 문양으로 접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궁과녁 상단의 '한일자 띠'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 '포' 상단에서 볼 수 있는 '리'의 변형일 것이라는 가정과 탐라순력도 '제주전최'에 묘사된 一관의 관 번호가 고착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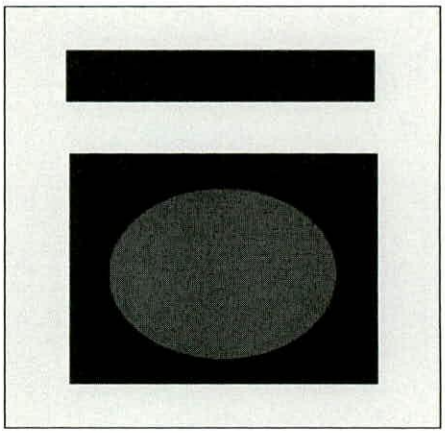
이러한 관 번호의 고착화라는 관점은 '제주전최'의 과녁 상단에 표기된 '一'과 또 다른 관에 표기된 '二'를 통해 관 번호와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회화와 사료의 대부분이 과녁 하나만을 묘사한 것과 같이 관혁 번호 역시 '一 자' 만을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란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일자 띠' 또는 '눈 섶'으로 불리는 국궁과녁 상단의 문양에 대해 탐라순력도 '제주전최'의 관 번호 표식에서 유래된 것이란 논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흰색 바탕에 검정색의 '관'과 관 안쪽에 정곡인 '홍심'과 그 중심에 관 번호를 그려 넣은 현 국궁과녁 형태는 탐라순력도에서 볼 수 있는 관과 포의 문양을 합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홍심은 검정색 관의 '곡'인 셈이며, 홍심은 변과 관의 중앙인 '정곡'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탐라순력도의 관, 포와 현존 과녁과의 상관성을 살펴볼 때 현존과녁 상단의 '一자 띠'는 포 상단의 건곤감리 중 '리'의 변형이거나, 탐라순력도 제주전최의 관 번호였던 '一'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대부분의 사정과녁이 하나였던 상황에서 좁은 관을 넓혀 그 중심에 포의 정곡인 홍심을 표기함으로써 '一'관 표기 역시 관의 크기와 같이 늘어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고착화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겠다.

현재 전국 활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궁 과녁은 <그림 12>과 같이 대한궁도협회의 시설규정에 따라 규격화되었으며, 획일화되었다. 대한궁도협회의 이러한 시설규정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명시된 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회화와 사료를 통해 그 생성유래와 관련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은 조선시대 회화 중에 관혁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지 않고, 다만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서 볼 수 있는 '관'과 '포'를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림 13> 대한궁도협회 공인과녁

출처: 대한궁도협회

현재 대한궁도협회의 경기규정은 조선시대와 같이 '변'과 '관'을 구별하여 점수를 산정하지는 않는다. 즉. 과녁의 어디든지 맞고 튀어나오되 과녁 밑변을 기준으로 후방 1m에 설치한 판정 선을 촉 부분이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모두 관중으로 판정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판정방법과 상이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을 담당하는 과녁심판은 과녁 뒤 판정선에 걸친 화살촉이 판정선 안쪽인가 바깥쪽인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화살이 판정선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화살촉이 판정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관중으로 판정해서는 안 되며, 과녁심판은 제3자에게 이를 확인시킴으로써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 심판으로서의 책무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 국궁과녁의 문양과 형태는 정진명(1999)이나 김집(2001)이 주장하는 히노마루(日の丸)이거나 급조된 것이 아니며,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2)에서 볼 수 있는 관, 포의 문양과 형태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용도

에 따른 화살촉의 변화로 인해 관과 변을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판정방식에서 과녁 어디에든 화살이 맞고 튕겨져 나와 화살촉이 과녁 뒤 판정선 안쪽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다 같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전쟁, 살상용이 아닌 체육을 위한 활쏘기의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궁수련을 통한 심신단련과 체육을 위한 목적에 따라 전쟁용으로 사용된 첨예한 화살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화살이 과녁에 박혀 훼손되는 불편함보다 과녁에 맞고 튀어 나오도록 화살촉의 형태가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녁의 소재 또한 화살이 꽂히기 쉬운 참나무 등의 나무판에서 참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판에 고무판을 덧대어 화살이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사거리(射距離)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더 중시하는 전통적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궁은 우리민족의 상무정신을 근간으로 한 여유로움과 배려심을 내재한 전통문화유산이며, 향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학문적 정립을 통해 그 보존적 가치를 더욱 고양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 결과는 곧 현존하는 과녁의 정곡인 '홍심'과 '한일자 띠' 또는 '눈썹'으로 통칭되는 과녁 상단의 문양에 대한 유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궁의 Sports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국궁과녁의 '곡'인 둥근 원(홍심)과 검은색 정사각형의 '관' 그리고 '관'을 에워싼 흰색 바탕의 '변'을 기준으로 부위별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경기방법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탐라순력도의 관과 포의 문양과 형식을 토대로 현존하는 국궁과녁의 문양과 형식에 내재한 함의도출을 통해 국궁과녁의 변천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행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 국궁과녁은 탐라순력도의 관, 포에 묘사된 문양과 형태를 계승한 것이며, 고정 '관혁'과 이동이 용이한 습사용인 '포'로 구분된다. '관' 또는 '변'으로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재 관혁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현재와 같은 둥근 촉이 아닌 세모촉의 살상용 화살을 사용하여 관혁에 꽂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국궁과녁과 같이 플라스틱판이나 목재 틀에 고무판을 덧 댄 형태로 변화된 것은 전쟁용이나 살상용으로 사용된 첨예한 화살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화살이 과녁에 박혀 훼손되는 불편함보다 과녁에 맞고 튀어 나오도록 화살촉의 형태가 둥근 촉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145m 사거리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체육을 위한 활쏘기의 목적과 결부되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더 중시하는 전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현 국궁과녁의 홍심은 1960년대 조직화 과정에서 급조되었거나, 관 위의 한일자에 맞추다 보니 관이 넓어져 중심점이 필요해짐에 따라 홍심을 그려 넣게 되었다거나, 한국전쟁 후 관 중심에 홍심을 그려 넣는 습관이 생겨났으며, 관은 홍심을 그려 넣다 보니 좌우로 넓어지게 된 것이고, '일자띠'는 과녁의 균형을 잡기 위함이었다는 것 역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일장기(日章旗)[9]

9) 일본을 상징하는 깃발임.. 원어로는 '닛쇼-키'라고 읽지

의 상징인 '히노마루(日の丸)'나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홍심을 과녁에 그려 넣고 이를 쏘았다 설은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포'의 관과 정곡을 통해 사실무근임이 입증된다. 특히 건곤감리 4괘 중 '화(火)', 즉 태양을 뜻하는 '리(離)'를 '포' 상단에 그려 넣었던 것은 군사들의 습사 시 불꽃같은 용기와 사기진작을 통해 상무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셋째, 흰색 바탕에 검정색의 '관'과 관 안쪽에 정곡인 '홍심'을 그려 넣은 현 국궁과녁 형태는 탐라순력도의 관과 포의 문양을 합성한 것이다. 따라서 관, 포의 곡은 현존 과녁의 관과 동일한 형태이고, 홍심은 포의 정곡이며, 현존 과녁 상단의 '一자 띠'는 탐라순력도 '포'의 문양인 '리'괘의 변형이거나, 제주전최의 관혁 상단에 표기된 '一', '二'의 관 번호가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것이다. 현 국궁과녁의 정곡인 홍심에 관 번호를 써 넣는 표기 방식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왜곡된 것이며, 관 번호인 '一. 二, 三의 표기는 홍심 중앙이 아닌 상단에 표기되어야 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현존하는 과녁의 정곡인 '홍심'과 '한일자 띠' 또는 '눈썹'으로 통칭되는 과녁 상단의 문양에 대한 유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궁의 Sports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국궁과녁의 '곡'인 둥근 원(홍심)과 검은색 정사각형의 '관' 그리고 '관'을 에워싼 흰색바탕의 '변'을 기준으로 부위별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경기방법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 병와 이형상이 남긴 제주의 중요문화유산인 탐라순력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18세기 초 군사요새로써 제주의 효용적 가치는 물론 천혜의 조건을 갖춘 장수지역으로서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과 생활상들이 현 제주인의 정서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탐라국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 일본인들은 '히노마루(日の丸)' 즉, "해 동그라미"라고 함.

참고문헌

http://images.google.com/ 검색

국궁신문 2010년 6월 21일자 기사 발췌

김기훈(2005). 과녁 변천사 연구소론. **국궁문화연구회 세미나 발표 자료집**.

김집(2001). **황학정 백년사**. 서울. 황학정.

김칠환(1966). **한한대자전**. 서울: 민중서림.

김현준, 최석규, 옥광(2008). 한국전통 활쏘기의 철학적 특성; 정간배례와 집궁시제원칙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233-253.

대한궁도협회 시설규정 발췌

동아일보. 1932년 5월 9일 보도자료 발췌.

동아일보. 1928년 7월 14일 보도자료 발췌

박종배(2003). 조선시대 성균관대사례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 13.33-58.

손환(2005). 한국에 있어 활쏘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23-35.

옥광, 최석규(2008). 한국전통 활쏘기의 이론정립을 위한 소고. **한국체육학회지**. 47(1). 1-14.

울산매일. 2014. 2. 26자 기사 발췌.

윤민용(2010). **탐라순력도 연구**. 미간행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이중화(1929). **조선의 궁술**. 경성: 대동인쇄주식회사.

전은진(2011). **한국 고대와 중세의 국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

원, 서울.

정재성, 최미애(2011). 한국 활쏘기 문화의 현황적인 특성. **한국스포츠인류학연구**. 6(2). 173-190.

정진명(1999). **한국의 활쏘기**. 서울. 학민사.

진영일(1996).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163-184.

최석규·옥광·정희석(2009). 조선후기 국궁의 변천과 사회·문화적 기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4(1). 29-44.

최석규·옥광(2009). 개화기 국궁의 사회·문화적 기능. **평생체육연구소논문집**. 20. 177-185.

최석규, 옥광(2010). 국궁의 사상과 사풍에 관한 연구. 평생체육연구소, 21. 229-239.

최석규, 정희석(2009). 국궁의 고대사적 전통. **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 4(2). 125-149.

최석규(2009). **국궁의 변천과 사회·문화적 기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청주.

최석규(2013). **조선시대 궁술의 사회·문화적 기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청주.

황재영(2009). **진경산수화의 정신 표현: 겸재 정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Ok, G. Choi, S. & Jeong, H.S.(2010). The Disturbance of War: The Ancient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Archery, *The International Jour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 27, No. 3.* 523-536.